

■ 책을 읽고 ■

이선주 지음, 『경계인들의 목소리 -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 (서울: 그린비, 2013) 203쪽.

오 윤 호

“나는 항상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안락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뿌리박힌 존재라고 느끼지는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다”

- 창래 리-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수는 모두 140만 9,577명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수의 2.8%에 해당하는 수다.¹⁾ 이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경제적 조건 속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현상이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한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전지구적인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주민 및 이주자²⁾의 현실과 다문화적 갈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전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인문학적 주제가 되었다.

1) 서울경제, 2012.08.09.

2) 본고에서는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주자(오윤화)와 디아스포라(이선주)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우리말과 외국어라는 어감의 차이도 상당하지만, 경계인에 대한 한국적 시각과 미국 문화 속에서의 경계인의 시각을 같으면서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읽는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의식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현실 변화에 발맞춰서 2000년대 이후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문화’, ‘다문화주의’ 등 새로운 정책 및 담론을 내놓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경계, 문화적 혼종성, 새로운 다가치적 사회를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졌고, 공익광고에서도 심심찮게 “외국인 이주자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주제의 광고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다 보자. 나는 외국인 이주자 문제와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영화나 소설 재현을 강의할 때마다 대학생들 앞에서 먼 이국의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낯은 목소리의 여행자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어설픈 예언자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외국인 이주자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는 없겠지만”이나 “혹시 안산 외국인 거리나 마석 가구 단지에 가면”이라는 말로 시작해보지만, 대학생들의 시선에 남아 있는 당혹감과 무관심을 감추기란 쉽지 않다. ‘외국인’이라면 영어 원어민 교사를 떠올릴만한 환경에서 살아온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 학생들에게 외국인의 노동권과 시민권, 그들의 문화 적응과 왜곡된 자본주의적 현실을 이해하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당혹스러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이 시차적 간극을 만들어내는가?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한 ‘다문화 정책’의 왜곡된 양상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며, 심층적으로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들의 인권과 시민권 및 다문화적 가치에 있다기 보다는 값싼 노동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모두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적응’하고 있는가? 그들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차이로 만들어지는 주체와 타자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대 이후 영화나 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형상화를 분석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 우리 시대의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필자 역시 2000년대 소설 속에 나타난 외국인 이주자의 형상화를 분석하며, 외국인 이주자를 내부 타자와 동일시하고, 이국문화를 신비화하며, 외국인 노동자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외국인 이주자를 타자화하는 서술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³⁾ 이러한 소설 재현의 한계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작가가 직접 소설을 쓰고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문화적 소수자의 내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소설은 아직 외국인 이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현할 수 없는가? 외국인 이주자의 2세, 3세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0년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그저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가?

이선주의 『경계인들의 목소리』⁴⁾는 전지구적으로 전개되는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아시아계 미국 소설이 형상화하는 디아스포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있다. 『경계인들의 목소리』라는 도발적인 제목도 눈길을 끌지만, 미국 문학 내의 아시아계 소설이 재현하는 인종적 문화적 혼종성과 디아스포라로서의 수행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책이다.

『경계인들의 목소리』는 앞서 필자가 던지는 외국인 이주자의 목소리와 문화적 위치에 대한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소설 재현 속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게 됨으로써 외국인 이주자의 문화혼종적 삶과 왜곡된 자본주의적 정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또한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와 문화 속에 놓이게 된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며, 전지구적인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비판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경계인들의 목소리』는 이주자의 문화적 위치를 정교하게 설정하기

3) 오윤호, 「외국인 이주자의 형상화와 우리 안의 타자담론」, 『현대문학이론 연구』 40권, 2010, 241~263.

4) 이선주, 『경계인들의 목소리 -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 (서울: 그린비, 2013). 본문에서 인용문 뒤에 숫자만 적힌 경우는 이 책의 쪽수임.

위해, 시민과 대립되는 대상으로 ‘이주자’ 혹은 ‘비(非)시민’이 아닌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위치시키고 있다. ‘디아스포라’를 선택한 이유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용어인 이주자보다는,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상과 갈등을 더 길게 함축한 용어를 원했다”(8쪽)고 언급하며, “세계화 속에서 가장 주변적 존재가 된 이주자들”이 갖고 있는 ‘민족적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계 넘기’, ‘집단적 의식’, ‘행위자’라는 개념들로 이들을 분석하겠다고 밝힌다. 시민과 디아스포라의 사이를 탐색한다는 설정과 디아스포라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겠다는 방향은 서로 다른 문제를 내포한다.

『경계인들의 목소리』의 1장은 시민권의 역사를 개괄하고 자본주의 현실에서 ‘디아스포라의 산포’가 발생하는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시민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은 길고도 지난하며 치열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경합의 산물이다”(16쪽)라고 밝히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부터 조르주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까지 서구 유럽의 지성들을 불러내 ‘시민’과 ‘시민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근대 시민(권)이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하면서 형성되었으며, 시민(권) 제도는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점이다.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 시스템을 구체화했던 것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내세운 시민(권)이었던 것이다. 이때의 시민(권)은 구체화된 실제의 모습을 가진 것이기도 하지만,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민족)만큼이나 추상화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 ‘흩어진 자들’ 또는 ‘산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그 기원에 대한 탐색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확산을 비증있게 다룬다. 디아스포라는 기원전 607년 이스라엘에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쫓겨나 강제 이주당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 서구는 생산과 개발의 현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담당할 수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사고파는 노예 무역이 생겨나거나(16세기), 서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내부식민지에 따른 농촌을 떠나는 난민들이 도시에 유입되기도 하고(17-18세기), 중국인과 일본인이 태반인 계약노동자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19-20세기) 이후 “자본주의가 낳은 불균등 발전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집단적인 디아스포라를 유발하게 된다.”(45쪽) 이러한 현상은 후기 산업화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전지구적인 디아스포라 현상이 21세기에든 여전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근대 국가의 형성과 시민(권)의 등장, 자본주의의 발달과 디아스포라의 증가라는 두 가지 상황은 시계 속 톱니바퀴처럼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근대 국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내면화하면서 정치 경제의 역학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간다. 그 와중에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시민(권)은 억압받고 통제되는 디아스포라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하고 소외시키는 하나의 정책으로 활용된다. 시민과 디아스포라는 국가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표상으로 존재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국가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서로 다른 표상들이며, 똑같은 기의의 동일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은 국가라는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시민과 자본주의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디아스포라 모두가 필요하며, ‘범’이라는 경계선을 좌우로 시민과 디아스포라는 분리 배치해 놓은 것이다. 책의 부제목이기도 한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사이’는 차이를 전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체화된 표상이라는 동질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제시한 것이다.⁵⁾

『경계인들의 목소리』는 2장에서 6장까지 미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내면화한 디아스포라의 삶이 가진 다층적인 모습들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경계 넘기’, ‘집단적 의식’, ‘행위자’를 중요한 분석적 시각으로 사용하며 역사와 이주, 인종적 소통과

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과 그린비가 만드는 <사이시리즈>는 ‘탈경계 인문학’ 일반교양 도서로서 사이, 경계에서 생성되고 있는 새로운 존재와 사유를 연구하는 대중서이다. <타자와 우리 사이>,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 등과 같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표면적으로는 이질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사이’를 매개로 사유하고 연구함으로써 두 대상 사이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선주 지음, 『경계인들의 목소리 -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

문화번역, 왜곡된 자본주의와 미디어의 폭력성 등 20·21세기 사회학과 인문학에서 다룬만한 주요한 논제들을 꼼꼼하게 분석해낸다.

존 오카다의 『노노 보이』를 다룬 2장 ‘모국과 이주국 사이에 끼이다’는 진주만 공습 이후 자국 내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입영시켰던 미국 정부의 부당한 폭력을 고발하는 동시에 이들 일본인들이 ‘사이에 끼인 존재’로서 겪는 무력감과 내면화되는 폭력성을 잘 보여 준다. 전세계적인 이민을 통해 만들어진 미국이 일본계 미국인을 탄압했던 것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시민(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내의 단일 국민성을 지향하는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으로 디아스포라한 소수 인종의 탄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로 유명한 창래 리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와 『제스처 라이프』를 논하고 있는 3장 ‘민족을 가로질러 공통분모를 찾는 사람’과 4장 ‘동화와 그 이면’은 미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계 디아스포라들이 거주국 미국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열망과 좌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20세기 초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일본인이 되고, 미국인이 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민자들이 이민 온 초창기에는 고국의 사람들과의 결속에서 힘을 얻지만 점차 자기 민족의 틀을 벗어나 미국 내의 다른 민족들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며 함께 뭉쳐서 정치적 힘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그리고 있다.”(84쪽) 뉴욕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계 정치인 존 강이 등장하며 소수민족의 정치화와 초(超)민족적 연대 가능성을 시도하지만 미국 정부와 주류 사회는 이러한 정치적 행동을 비열하게 응징한다. 한편 『제스처 라이프』는 조선인이었지만 일본인 행세를 했던 일본계 미국인인 플랭클린 하타의 삶을 다루며 미국인이

되고자하는 패싱(passing, 다른 인종/민족인 척하기)⁶⁾의 욕망과 젠더화된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소설로 인종적·문화적 ‘혼종’ 속에 미국 주류사회에 동화되고자하는 비체화된 소수민족의 삶을 구현하고 있다.

5장 ‘이주국에서의 문화번역’은 한국계 1.5세 작가 수키 김이 쓴 『통역사』를 통해 디아스포라들의 문화번역과 처절한 적응을 분석하고 있다. 『통역사』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비교문학을 공부하는 29살 수지가 코리아 타운에서 살해된 자기 부모님의 비밀을 찾아가는 소설로, 불륜과 살인 등 극단적인 상황을 겪는 디아스포라의 소외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통역사처럼 두 세계, 두 문화 속에서 위치한 존재다. 그러나 “디아스포라(이민자)에게 문화번역은 생존의 문화번”(124쪽)이고 적극적인 수행성을 통한 번역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6장 ‘지구화시대 이주자들의 혼종성’은 일본계 3세 작가 카렌 테이 야마시타의 『오렌지 회귀선』을 분석하며, 멕시코식 민중 서사, 미디어의 작동 양태와 자본의 생리, 탈중심성에 대한 찬착 등 다양한 소재를 녹여 혼종사회의 거대한 지도를 그려내고 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오렌지 회귀선』은 다인종 사회인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속한 7명의 주인공이 번갈아 가며 서술하는 독특한 형식의 소설이다. 아라파투이는 『교배풀린 현대성』에서 현대성이 규칙화될 수 없고 균질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엄청나게 확장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하여, 핵심적인 요소로 이주와 미디어를 지목한다.(137쪽) 소설 속 배경이 되는 다인종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폭동을 생중계하는 미디어는 현대 사회의 혼종성과 그 이면의 폭력적 역학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 “패싱은 동화의 극단적인 한 유형이다. 동화는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이 거주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익혀 거주국 국민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패싱은 익히고 모방하는 동화에다가 ‘행세하기’라는 속임이 강하게 배가 된다.” 이선주, 『경계인들의 목소리...』, 91.

이상에서 미국 내 디아스포라들의 혼종적 삶과 미국 정부와 주류 사회로부터 억압받는 문화적 차별 상황을 소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디아스포라의 혼종적 정체성과 유동하는 삶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각각의 소설 속 인물들이 이중 문화 혹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디아스포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이다. 사실 각각의 소설 속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상적인 시민은 누가 될 것인가? 시민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국 내 아시아계 디아스포라의 위기 혹은 가능성을 진중하게 묻는 이 책의 서술 전략은 한편으로는 국가 시스템 안에 안전하게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시민(권)의 위기를 암묵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 책에서 디아스포라 문제로 분석하는 내용은 미국의 시민(권)에 내재한 균열을 발견하고 표상화하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언급했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한국 내의 시차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안의 외국인 이주자를 재현할 수 있는가? 진정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물론 외국인 이주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때”는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수많은 인종적 문화적 차별이 법과 사회제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일 것이 분명하다. 미국 내 디아스포라의 문제가 결국 미국 시민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환기한다면, 우리 시대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진지한 문학적 재현과 사회적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노력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경제적 계급적 하층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환대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에 앞서, 한국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적 지점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가속화되는 다문화사회는 시민권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181쪽) “자국 문화의 편협한 구속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세계문화의 다양성과 타자의 문화적 관점을

이해”(73쪽)하는 코스모폴리탄의 윤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fictus@ewha.ac.kr